

성삼 후 4주일(연중 12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 설교: 이종민 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552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9쪽)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우리를 온갖 유혹과 위협에서 보호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어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사무상 17:32-49 말 은 이
성 시 시편 107편 다 함 께



- 1 주님께 감사노래 불러라. 그는 어지시다.
○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 2 주께서 구해 주신 자들아, 모두 노래하여라.
○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 3 동서남북 사방에서
○ 불러 |모아|주셨다.
 - 4 그들은 주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 깊은 바다에서 그 기적|들을| 보았다.
 - 5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여라.
○ 인생|들에게| 베푸신| 기적|들| 모두| 찬양|하여라.
 - 6 백성들 모임에서 그를 |기리|고
○ 장로|들| 모임에서 그를 |찬양|하여라.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2고린 6:1-13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르 4:35-41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445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10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5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487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41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4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475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6월 23일)	다음 주일(6월 30일)
1독서	정연창	이숙영
2독서	박순호	홍종분
대 도	정국진	김준우
다음주일 전례독서	지혜 1:13-15, 2:23-24 시편 30 2고린 8:7-15 마르 5:21-43	
성 가	243 426 563 392	
복 사	이동우 이서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3조> 권순호 황선숙 김운권 홍양금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6월 23일 성삼 후 4주일(연중 12주일) · 나해 · 녹색

제28-25호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바다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이지만, 풍랑이 거세게 일면 옛사람들은 악한 신이 바다를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읊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전하는 율기 38장을 통해서 신앙인들은 오랫동안 불안과 걱정요하는 마음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다스렸습니다. 율기와 함께 우리도 깨닫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때로 인간의 존재를 압도하고 위협하는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인간의 삶 또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궁극적 아름다움과 선을 이루어가실 것임을.

오늘 복음 말씀은 오직 하느님만이 소유하신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성자 예수에게 부여합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부 하느님의 보호 안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순간에도 "뱃고물을 베개삼아 주무시고" (마르 4:38) 계신 스승 예수를 보고 제자들은 성을 냅니다. 당혹스런 상황을 마주한 인간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향해 들어갈 수도 있고, 겁에 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세상을 다스리시며 마침내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겁이 많고 믿음은 적은 사람'(4:40)입니다. 그러나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딸 된 우리를 당신께서 성부 하느님 안에서 누리시는 친밀하고 고요한 신뢰와 평안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4:41)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 축일 (6월 29일)

교회는 수많은 성인을 기억하며 축일을 지킵니다. 6월의 막바지에 도, 많은 성인들의 축일이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자신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의 축일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일에서는 실수도 있고, 의견 충돌로 서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도 서로 분쟁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축일을 함께 지키면서, 교회와 선교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면 갈등이 생기지만, 함께 바라보는 희망과 헌신 안에서 화해와 결실이 마련됩니다. 두 분 성인은 그렇게 그리스도 교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출신과 배경, 성격과 신앙의 경험이 사뭇 달랐지만, 최초 교회의 성립에서 이 두 분만큼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성서와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갈릴래아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급한 성격으로 실수도 잦았지만,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무서워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새벽의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여전히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랑의 확신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울로 성인은 좋은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초기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깊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논리적이면서도 단호한 성격으로 다른 이들과 충돌도 잦았지만, 복음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이방인들을 안내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평생을 괴롭힌 여러 병을 앓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여러 차례 투옥 당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사목적 감각과 복음 이해, 그리고 탁월한 문필력으로 교회의 신앙의 격려하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두 성인은 서로 의견이 달라 갈등하기도 했지만, 그 신앙의 종착지는 같았습니다. 로마와 교회와 순교였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으로서 교회를 돌보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바울로는 여러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합니다. 로마는 이 순교의 피로써 그리스도교 역사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순교를 지칭하는 희랍어 '마티리아'는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성인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두 성인의 가르침과 증언과 순교로, 후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나마 가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성인에게 참 고마운 빛을 졌습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5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립비서 4장 13절)

교회소식

전례와 사목

전례력 및 전례곡조 안내

성삼 후 절기(연중절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례색은 <녹색>, 전례곡조 <C곡>입니다.

알림

전교우 여름 수련회

일시: 7월 20일(토) ~ 21일(주일)

장소: 강촌 성요한 피정의집 (춘천시 남면 발산리)

모든 교우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남부교구 권역별 <여름성경학교>

일시: 7월 27일(토) 하루 / 장소: 수원교회

서울교구 세실대학 '신자 사역자' 6기 모집

접수기간: 7월 22일(월) ~ 8월 3일(토)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입학식: 9월 1일(주일) 오후 4시

관할사제 안식년 - 안식월

6월 4일(화) ~ 7월 4일(목)까지 관할사제 최용준 신부님이 안식월을 갖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월 산본교회 집전/설교 담당자

6월 23일 이종민 바우로 신부님(선교교육국장)

6월 30일 최돈순 바우로 신부님(사회선교국장)

*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종민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그룹(구역) 모임 -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오늘(23일)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을 가져 주십시오.

제2회 성서 암송대회 (범위: 시편 1편)

일시: 7월 28일(주일) 11시 성찬례 후

금요 기도모임

6월 28일(금)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청년회 여름 수련회

일시: 8월 15일(목) ~ 17일(토) / 장소: 군산

지난주일 봉헌 내역

십일조 · 월정헌금 1,120,000원

김준우/조장은 박종례 이상현/최미혜
장성환/임혜지 최용옥/윤희진

주일헌금 122,000원

고미순 권순호/황선숙 류한신/이민녀
이동우 이왕수/이원주 이윤식/백옥경
장대현 장성환/임혜지 장재현

감사헌금 229,000원

김은하 박경조(예배집전) 정연창/박순호
조준행/이은경(건강) 허재원 무명

특별헌금 70,000원

정연창/박순호(아론) 무명(아론)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주간전례독서 (6월 24일 ~ 29일 / 연중 12주간)

	독서	복음
24일(월)	사도 13:14하-26	루가 1:57-66,80
25일(화)	열왕하 19:9-11, 14-21상,31-36	마태 7:6,12-14
26일(수)	열왕하 22:8-13,23:1-3	마태 7:15-20
27일(목)	열왕하 24:8-17	마태 7:21-29
28일(금)	열왕하 25:1-12	마태 8:1-4
29일(토)	2디모 4:6-8[9-16],17-18	요한 21:15-22

✧ 기도해 주세요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박명득(클라라) 사모님 별세 (6.22)

산본교회 개척을 함께 하신 고 김진만(베드로) 교수의 부인이신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이은경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